

# '97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



통 일 원



## 〈 목 차 〉

1. '97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.....	1
2. 대내 경제동향 .....	4
가. 재정부문 .....	4
나. 건설부문 .....	7
다. 농림수산업부문 .....	13
라. 광공업부문 .....	23
마. 수송·통신 및 과학기술부문 .....	31
3. 대외경제동향 .....	35
가. 대외무역 .....	35
나. 남북교역 .....	46
다. 나진·선봉지대 개발 .....	49
<u>라. 대외경제협력</u> .....	51
4. 종합평가 .....	57
※ 부록 : '97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일지 .....	61



## 1. '97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

- 김일성사망('94.7.8) 이후 북한은 신년사 대신 이른바 「공동사설」(당보·군보·청년보)를 통해 당해연도의 경제시책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음.
- '97년도에도 역시 「공동사설」의 형식으로 간단히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음.
  - 전반적 특징은 새로운 정책 대안의 제시없이 체제위기를 자인하는 가운데 절망적 상황 극복을 위한 「고난의 행군」 정신을 적극 선동하고 있다는 점임.

### < 「공동사설」 제목 >

'95년도	“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자”
'96년도	“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”
'97년도	“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,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”

- 북한이 '97년 「공동사설」에서 밝힌 경제부문 시책 방향은
  - ①「먹는문제」의 결정적 해결 ②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③국토건설 사업의 추진 등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하는 한편
  - 당 중앙위 제6기 21차전원회의('93.12.8)에서 완충기 과업으로 제시한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

- 석탄공업과 전력공업, 금속공업부문에서 생산혁신으로 석탄·전력·금속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됨.
- 이를 위해 북한은 “인민경제의 모든 부문, 모든 단위들에서 최대한으로 증산·절약할 데 대한 구호”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며
  - “한 와트의 전력, 한방울의 기름, 한줌의 석탄, 한조각의 강재라도 극력 아껴써야 한다”고 강력히 촉구하였음.
- 그러나 지난해로 완충기(‘94~‘96년)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번 공동사설에서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의 계속적 추진이 다시 강조됨으로써
  - 당초 왜곡된 경제구조 조정을 목표로 북한이 설정했던 ‘완충기 경제전략’이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구체적 대안없이 연장되었음을 시사하였음.
- 기간중 북한은 공동사설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(1.5)를 시작으로 각 시·도 단위별로, 각 공장·기업소별로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쉼기모임을 연이어 개최하는 한편, 청년근로자들을 앞세워 「충성의 쉼기모임」을 개최하였음.
- 또한 김정일사망(‘94.7.8)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개최고 있는 김부자 현지도 또는 공장·기업소의 창립기념보고회도 전년동기 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선동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였음.

- 지난해 상반기중에 개최된 경제부문 기념보고회는 22건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16건(월평균 3건정도)

o 특히 「청년동맹」, 「직총」, 「농근맹」, 「여맹」 등 당 및 외곽단체들의 회의를 자주 소집하는 등 경제관리의 정치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음.

- 이들 집회에서 북한은 청년들이 김정일 중심으로 몽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관

< 상반기중 당 및 외곽단체 회의 개최 현황 >

일 자	내 용
1.18	o 「청년동맹」 창립 5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
1.20~21	o 「청년동맹」 중앙위 제11차 전원회의
1.24~27	o 전당 당 일군회의
1.29	o 「직총」 중앙위 제33차 전원회의
1.30	o 정당·단체연합회의
2.3	o 「농근맹」 중앙위 제29차 전원회의
2.5	o 「여맹」 중앙위 제25차 전원회의
2.23	o 「직총」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 o 「청년동맹」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
2.24	o 「농근맹」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 o 「여맹」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
2.24~25	o 전국 공산주의 미풍청년 선구자 대회
6.18	o 김정일의 당 중앙위 사업개시 33주년 기념 중앙보고회

○ 요컨대 '97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은

- 지난해로 당초 설정한 완충기('94~'96년)가 어떤 형태로든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
- 식량난 등 직면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·회생시킬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음에 따라
- 김일성의 「유훈」 실현과 함께 완충기간중에 설정한 바 있는 당의 「혁명적 경제전략」을 그대로 답습·연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
- 적극적인 의미의 경제난 타개 방안보다는 '한 와트의 전력, 한줌의 석탄이라도 극력 절약'하는 절약 일변도의 소극적 시책에 불과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겠음.

2. 대내경제동향

가. 재정부문

- 북한은 '95년 이래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예산 및 결산을 심의·승인하지 못하고 있음.
- '94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「조선중앙년감」 ('95년판)을 통해 뒤늦게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 결과 미발표



- 금년도에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(제9기 8차회의) 불개최로 '96년도 예산집행의 결산은 물론 '97년도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용하고 있음.

※ 통상 북한은 매년 3~5월경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함께 당해연도의 예산안을 확정, 이를 기초로 재정을 운용

- 다만, 3.10 이종욱(부주석), 한성룡(당 중앙위비서), 홍석형(국가계획위원장) 등 당·정 고위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

- 김일성의 “국가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하여” 발표 5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여타 기념보고회보다 비중있게 개최하고

- “김정일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재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”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면서

- 올바른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, 국가예산 수입의 증대 및 국가자금 지출의 절약 등 재정총화와 함께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부문의 재정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음.

※ 북한은 모범적인 재정관계자 40여명에게 무더기로 국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재정부문의 사업분위기를 일신하려 하였음.

- 그러나 기간중 만성적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, 정치선전 목적의 낭비적 재정지출 증대, 재정규율의 이완 현상 등은 호전되지 못하였음.
- 또한 '97. 2월 하순경에는 엄격한 가격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 재정수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총 4장 37조로 구성된 「가격법」을 제정하였음.
- 이는 최근 경제침체와 더불어 비정상적 유통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가격이 국정가격과 암거래 가격으로 이원화되는 등 가격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
  -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는 거래수입금, 국가기업이익금 등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됨.
- 이로 볼 때 '97년 상반기중 재정부문은
  - 재정규율의 이완현상이 각급 단위기관으로 확산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따른 예산의 낭비적 누수현상이 심각한 가운데
  - 공장·기업소에서 원가, 가격, 이윤 등 관련 자료들이 상부단위기관으로 정확히 보고되지 않아 「실물계획」과 「현금계획」이 맞물리지 않고 상충되는 등
  - 전년동기보다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평가됨.

나. 건설부문

- 북한의 경제건설은 '90년대 들어 계속 위축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'97년 상반기 중 건설실적도 전년동기에 이어 크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음.
- 북한은 상반기 중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, 중소형발전소 건설, 국토관리사업 등을 금년도 역점 경제건설 사업으로 설정, 건설을 추진하였으나, 금강산청년선 철도부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진척이 매우 부진하였음.
  - 건수면에서 '97년 상반기중 완공·조업된 북한의 총 건설 실적은 전년동기의 1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4건을 기록하였으나
  - 규모면에서 김부자 현지도 표식비, 다리건설 등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이 주류를 이루었고
  - 내용면에서도 금수산기념궁전 성역화사업 등 정치사상적 상징물의 건설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건설은 극히 부진

<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 추이 >

1991	1992	1993	1994	1995	1996	1997(상반기)
85건	94건	54건	31건	65건	36건	24건

○ 시기별로 보면

- 상반기 완공·조업 실적이 1/4분기 8건, 2/4분기 16건 등 총 24건으로서
- 외형상 경제건설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전년동기의 건설 수준(13건) 보다 크게 호전된 것처럼 보이나
- 정치사상적 상징물을 제외한 경제부문의 건설실적만을 보면 1/4분기 3건, 2/4분기 5건 등 총 8건에 불과해
- 실질적으로는 경제건설 실적이 전년동기 수준에 미달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음.

< '95-'97년도 분기별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 >

구 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총 계
'95년	5건	9건	7건	44건	65건
'96년	6건	7건	6건	17건	36건
'97년	8건	16건	-	-	-

○ 대상별로 보면

- 정치선전 목적의 상징물 건설이 전체의 62.5%를 차지해 건수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비해

- 농업·경공업·무역 등 북한의 3대제일주의 전략 관철과 관련한 건설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기간중 북한의 완충기 경제전략의 추진이 포기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냈음.
- 다만, 청진항 부두의 부분확장, 금강산청년선(101.5km)의 개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룩한 작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.

< 대상별 완공·조업건수 >

대 상 별	완공·조업 건수	비 중
정치선전 목적의 상징물	15건	62.5%
농·수산업	3건	12.5%
사회간접자본	3건	12.5%
기 타	3건	12.5%
합 계	24건	100.0%

- o 특히 기간중 북한의 정치사상적 상징물 건설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
  - 상징물 건설이 김정일생일(2.16)을 전후한 2월에는 4건, 김일성생일(4.15)을 전후한 4월에는 8건이 추진되는 등 김부자 생일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점,

- 김부자 이외에 김정일의 친모인 김정숙을 건립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상화를 위한 상징물의 건립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.
  - 지난해에 이어 「김부자 현지도 표식비」, 「사적비」 등 재정지출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위주로 추진하였다는 점 등임.
- 국토관리 측면에서는 홍수, 가뭄 등 최근의 잇따른 자연재해가 국토관리 부실에 있었음을 뒤늦게 인식하고
- 국토관리사업의 개선을 결의하는 가운데 평양시를 비롯한 각 시·도에서 강바닥 파기, 제방 쌓기 등 강·하천 정리사업과 홍수피해시설 복구작업에 주력하였음.
- 이로 볼 때 북한의 '97년도 상반기 중에는
- '97년이 완충기('94~'96)의 연장년도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경제건설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
  -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재정사정 악화 및 건설자재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제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으며

- 주민들의 정치사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상징물 건설공사에 주력함으로써 예년에 없는 부진상(전년도 건설부문 성장률 : -11.8%)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.

< '97년도 상반기 주요 경제건설실적 >

(완공·조업 기준)

월 별	건 설 실 적
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민문화궁전내 계급교양관 개관(1.6)</li> <li>○ 황해남도 연안군·신천군 등에 20개의 복합미생물비료공장 건설(1.22)</li> </ul>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지구에 대홍고무공장 완공·조업(2.13)</li> <li>○ 김영용소속부대, 김정일현지지도 사적비 제막(2.14)</li> <li>○ 평안남도 맹산군, 김정일현지지도 사적비 제막(2.14)</li> <li>○ 이용환소속부대, 김일성·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 제막(2.15)</li> <li>○ 남포시 강서구역 당 혁명사적지, 김일성 현지지도 표식비 제막(2.15)</li> </ul>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진항 3호 및 4호 부두건설 1단계공사 완료(3.26)</li> </ul>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동길소속부대, 혁명사적비 제막(4.11) - 「군향이여 천만년 길이 전하라」</li> </ul>

월 별	건 설 실 적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안남도 대동군, 김일성 현지도도 표식비 제막(4.12) - 「천만년 빛나라, 대동땅의 영광이여」</li> <li>○ 황해북도 평산군, 김일성 현지도도 사적집 건립(4.13)</li> <li>○ 함경북도, 360여세대의 농촌주택 완공(4.13)</li> <li>○ 함경북도, 새별혁명사적관 개관(4.13)</li> <li>○ 만수대창작사, 김정숙의 「말씀판」 제막(4.13)</li> <li>○ 금강산청년선(101.5km) 철도개통(4.15)</li> <li>○ 김일성고급당학교, 김일성현지교시판·김정일현지말씀판·김정숙현지말씀판 제막(4.22)</li> <li>○ 이종근소속부대, 김일성·김정일 현지도도 표식비건립(4.23)</li> </ul>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함경남도 금야강하구에 700정보의 염전조성(5.4)</li> <li>○ 해주시, 「군·민다리」 완공(5.10)</li> <li>○ 조선민속박물관, 민속놀이전시장 개관(5.23)</li> </ul>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애국복합미생물센터」 완공·조업(6.2)</li> <li>○ 평안남도 맹산군 평지리, 김정일 현지도도 표식비 제막(6.13)</li> <li>○ 금수산기념궁전 성역화작업 완료(6.29)</li> </ul>



## 다. 농림수산업부문

### (1) 농 업

- 신년초 발표한 「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」 제하의 당보·군보·청년보 「공동사설」(1.1)에서
  - ‘자력갱생의 구호 밑에 마련된 경제적 밑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푸는 것이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점과업’이라고 강조하고
  - 이의 관철을 위한 결의·궐기모임을 협동농장별로 잇따라 개최하였음.
- 뿐만 아니라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시·도 농촌경리위원장들을 연초에 대거 교체한 바
  - 이는 최근년간에 연속적인 흉작으로 농민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, 요령주의 노동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
  - 농업생산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함으로써 식량난 해결의 결연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임.

< 농업담당 고위간부 교체 현황 >

지 위	교 체 내 용
농업위원회 위원장	김원진 ⇒ 한익현
개성시 농촌경리위원장	강정옥 ⇒ 김창환
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장	최용선 ⇒ 김승진
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장	김락희 ⇒ 박영훈
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장	김영숙 ⇒ 최용선
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장	허복덕 ⇒ 김보경
양강도 농촌경리위원장	김금순 ⇒ 심상구

※ 박영훈은 순천군협동농장에서, 최용선은 수안군협동농장에서, 김보경은 청단군협동농장에서 발탁

○ 한편 농사철을 앞두고 「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」 발표 25돌 기념보고회(2.13) 등의 행사를 통해 '농업에서의 사상혁명'을 강조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

- 식량난 등으로 인해 극도로 이완된 농촌기강을 수습하기 위해 진력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음.

○ 북한은 연초부터 국토관리사업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대거 동원하고, 거름생산 등 농사채비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

- 2모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연이은 흉수피해와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.

- 「작전도, 지휘도 국토건설현장에서！」라는 구호 아래 국토환경보호부 간부들을 200여개 시·군에 일제히 파견하여 작업을 직접·독려하는 가운데 수재예방대책 차원에서 「국토관리사업」을 벌여 온 북한은
  - 흑한기임에도 불구하고 1원부터 평양시와 평안남도 청년동맹원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보통강과 관개수로의 바다파내기작업을 실시하는 등 제방쌓기, 하천준설, 토지개발사업을 전개하였음.
  
- 또한 수재복구사업과 관련하여 「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(FAO) 민족위원회」와 「북한 FAO 민족위원회」 간에 합의서를 채택(4.1)하였는 바
  - 동 합의서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으나, FAO가 북한의 수재이후 관개수로 복구·농지복구·이동관개장비 지원 등의 활동을 벌여왔던 점을 감안할 때
  - 금년 3월말로 종료되는 2차 수재복구지원사업에 이어 4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3차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은 문건인 것으로 추정됨.
  
- 한편 북한은 연초부터 각지 협동농장 분조원들에게 거름 생산목표를 할당하고, 이에 대한 「노력일 평가사업」을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는 등 거름생산 독려에 나섰으며,

- 「집집승우리 밭혀내기」, 「개바닥파기」, 「흙구이·흙깎이 사업」 등 지력향상사업을 전개하였고
  - 연초부터 「복합미생물비료공장」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1월 중순 현재 황해남도 연안군, 신천군을 비롯한 주요 농업생산기지들에 20개의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등
  - 농업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.
- ※ 「복합미생물비료」는 섬유소분해 미생물을 시험관에 배양한 후, 이를 물에 희석시켜 쌀겨·소석회·가축 배설물 등과 혼합하여 실온에서 발효시키고, 이를 다시 퇴비와 섞어 썩히는 과정을 거쳐 생산
- 북한은 또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2모작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음.
    - 기후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종래 북한에서의 이모작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실시

※ 가을밀보리의 경우 황해남도, 봄밀보리의 경우 양강도·자강도·함경도의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재배
  - 2모작을 위해 북한은 국제단체, 외국정부, 비정부단체(NGO) 등에 도합 2만여톤의 보리종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

- 유엔개발계획(UNDP), 국제적십자연맹(IFRC), 세계기독교협의회(WCC) 등으로부터 1만여톤 가량의 보리 종자를 지원받아
-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파종하였음.
- ※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「진주오1호», 「적성3·4호», 「모태N44호」 등 중국산 극조생종(재배기간 : 75~80일)을 지원받아 파종
- 그러나 북한의 전답이 극도로 산성화되어 있어 산성토양에 매우 약한 보리의 속성상 생산량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아니라
  - 보리를 수확한 후 같은 땅에 비나 옥수수를 이양할 경우 이양시기가 늦어지는데 따른 20~30%가량의 수확량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
  - 이모작의 성과가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으며
  - 북한이 2모작의 성과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실익을 거의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.
- 봄밀보리심기 파종을 끝낸 직후인 4월초순부터 북한은 감자심기에 나섰음.

- 금년도 감자심기는 예년에 비해서 2주정도 앞당겨진 것으로
  - 감자의 생육적온이 15~18℃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이른 시점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파종한 것은
  - 이모작 재배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.
- ※ 북한지역의 4월 평균기온은 3~10℃ 수준임.
- 한편 5.12자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은 농촌지원사업을 「전당, 전국, 전인민적 운동」으로 벌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
  - 각 기관 및 공장·기업소, 학교, 인민반 등을 총동원하여 강냉이 영양단지 모 옮겨심기와 모내기에 투입하는가 하면
  - 협동농장에 농기구 보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
- ※ 농기계공업관리국 산하 광산연결농기계공장, 해주연결농기계공장, 함흥연결농기계공장 등이 올해 1/4분기 기간중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가 훨씬 넘는 「모내는 기계」를 생산했다고 선전(4.20, 중방)
- 영농물자의 조달, 거름내기, 모내기 등에 해당지역 인민군 부대원을 동원하는 등

- 극도로 피폐해진 영농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였음.

○ 농업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총력전과 적절한 기상조건으로 농작물의 성장이 순조를 보였으나

- 벼·옥수수 등 식량작물의 풍·흉작이 결정되는 민감한 시기인 6월에 이상가뭄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금년도 작황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했음.

< 6월중 지역별 강수량 비교 >

지 명	강수량	평년값	지 명	강수량	평년값
청 진	14.3	100.7	함 흥	27.8	111.5
중강진	28.0	111.7	안 주	54.0	108.6
혜 산	23.8	124.6	원 산	31.6	150.0
강 계	52.1	142.6	평 양	50.8	97.7
수 풍	23.0	103.4	사리원	79.0	90.9
신의주	39.9	1160.9	해 주	57.0	118.4
신 포	1.4	129.9	개 성	83.3	115.8

## (2) 임업

- 북한은 4.6 식수질 50들을 맞이하여 김일성의 「국토건설 관련 교시 50주 기념 평양시 보고회」를 개최하고, 각지의 혁명사적지에서 식수행사를 가졌음.
- 북한은 산림을 임산공업림, 국토보호림, 하천·댐보호림,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림 등으로 구분, 산림자원의 용도에 따라 관리주체를 달리하고
  - 각급 기관·단체별로 일정지역을 할당하여 식수와 관리를 전담케 하는 「담당림제」를 실시하는 등 조림을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  - 각종 산업용재 벌채와 신탄재 생산을 위한 과도한 남벌, 농경지 확장을 위한 다락밭 개간, 연이은 홍수 등으로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
  -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전개할 여력이 없어 형식적인 식수행사에 그쳤음.

### < 산림자원별 관리주체 >

구분	관리주체	전 산림면적 대비
임산공업림	임업부	56%
국토보호림	사회안전부 국토관리총국	29%
하천·댐 보호림	전력공업부	2%
국영 및 협동농장림	농업위원회	4%
기관 산림 및 기타	군인민위원회	9%



○ 북한은 최근 미생물과 옥수수 오사리(강냉이를 싸고 있는 껍질)를 이용한 종이 생산방법을 개발하여 학습장, 벽지, 장판지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

- 종이의 질은 불량하나, 삼림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무를 사용한 펄프생산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임.

※ 「미생물 오사리 종이」란 「젤루스22」란 미생물을 약알 칼리용액에 희석시킨 후 옥수수 오사리를 담갔다 건져내 1주일정도 쌓아놓아 반섬유질과 리그닌을 분해·제거한 후, 남은 섬유질로 생산한 종이

### (3) 수 산 업

○ 3.22 어부절을 맞아 북한은 '450톤짜리 만능 드랄선, 4,750톤짜리 선미드랄선과 5,000톤짜리 냉장운반선, 1만톤급시상의 가공모선을 비롯한 대형화·현대화·만능화된 현대적인 각종 배들이 파도 사나운 물결을 헤가르며 물고기잡이를 하고 있다'고 선전(3.22, 중방)하였음.

○ 금년 어부절은 40돌로서 소위 「꺾어지는 해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 별도의 기념행사를 가지지 않고 이같은 의례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

- 어업장비의 노후화, 어업기술의 낙후, 그리고 '90년대 들어 경제침체와 함께 밀어닥친 극심한 유류난으로 출어율마저 급격히 감소하여

- 어획고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부진한 어업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
< 최근 북한의 수산물 생산실적 >

	'90	'91	'92	'93	'94	'95	'96
생산량(만톤)	145	120	114	109	99.8	94.4	86.6
전년비(%)	-9.9	-17.2	-5.0	-4.4	-8.4	-5.4	-8.3

- 북한은 금년들어 금야강 하구에 100여개의 소금탱크와 다수의 저장지, 염퇴장, 양수장 등을 갖춘 700정보의 염전을 조성하였다고 보도(5.4, 중방)하였음.
- 소금은 식용 외에도 가성소다, 탄산소다, 염산, 농약, 합성수지 제조 등 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바,
  - 북한은 지난해에도 소금생산이 부진하자 소금생산연합 총국관계자들을 광량만, 남시, 금성, 남포제염소 등에 파견하여 소금생산을 독려한 바 있으며
  - 금번 금야강 하구의 염전조성도 이처럼 부진한 소금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.

## 라. 광공업부문

### (1) 부문별 동향

- 상반기중 자원개발부는 연산능력 1천만톤 이상의 신규 탄광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석탄 매장지를 확보하는데 그 어느때 보다 강한 의욕을 보였음.
  - 특히 안주지질탐사대·평양지질탐사대는 평양지구에서 연산 1천만톤 능력의 탄발 조성에 주력
  - 황해북도 지질탐사관리국 산하 서흥지질탐사대는 대평지구에서 연산 50만톤 능력의 초무연탄 생산기지 마련에 주력
  - 함경남도 지질탐사관리국 산하 인흥지질탐사대는 정동지구에서 연산 10만톤 능력의 석탄발 조성을 목표로 설정
- 그러나 기간중 후진적 탐사체계 및 방법, 탐사장비 낙후 등으로 지질탐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음.
- 또한 석탄공업부문의 신규 투자는 재정사정의 악화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후된 채탄설비나 홍수피해를 본 시설물들의 보수·교체도 예년수준을 넘지 못하였음.

- 광산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도 북한 최대의 유색금속광산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가 연, 아연 등 수출물량 확보와 관련 비교적 활기를 나타낸 것 외에 이렇다할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음.
  - 북한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2~4월 기간중 연·아연 생산계획을 100.4% 초과 수행하였다고 선전
  
- 경공업 및 지방공업부문에서도 내수용보다 수출용 제품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것 처럼 나타났으나 생산규모면에는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위축되는 동향을 보였음.
  
- 특히 섬유·봉제공업부문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던 남한, 중국, 일본 등의 위탁가공교역이 국가별로 증감이 교차해 전반적으로 그 교역규모가 지난해 수준에 다소 미달하는 정체상태에 머물렀음.
  - 상반기중 남북간의 위탁가공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비 5.8% 증가한 3,591만달러로, 전체 남북교역액의 24.7%를 차지(승인기준)하였으나
  - 위탁가공제품이 대부분인 섬유류의 대일본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보다 10.2% 감소한 46.7억엔을 기록하였고 대중국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보다 23.9% 감소한 117만달러에 불과

○ 상반기중 에너지부문에서는

- 재정사정 악화로 에너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역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
- 탄광의 심부화 및 탄질저하현상, 발전설비의 노후화 및 송배전체계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 요인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.

○ 북한의 에너지 주공급원인 석탄생산부문에서는 순천, 덕천, 안주,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서부탄전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석탄 증산에 주력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음.

- 주동일(전력공업부 부부장)은 7.4 「조선신보」와의 회견을 통해 홍수피해의 여파로 석탄생산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

○ 안주청년발전소 2단계공사, 원산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강도, 함경남·북도 등지에 각 시·도 자체로 중소형발전소 건설토록 촉구하였음.

- 북한은 금년도에 중소형발전소를 200여개 건설한다는 목표 설정
- 상반기중 성천강 1호, 다천발전소 등을 완공하고 29개의 기존 중소형발전소를 보수·정비

※ 중소형발전소의 평균 발전능력은 486kW로 추정

○ 상반기중 전력생산량은

-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설비고장, 석탄공급애로 등으로 정상가동치 못함으로써
- 전년동기의 수준(약 110억kWh)에 크게 미달, 전력난을 부채질하였음.

○ 다만, 중유발전소인 6월16일화력발전소(선봉화력)만이 KEDO로부터의 중유공급에 힘입어 정상 가동되었음.

○ 이로 볼 때 북·미간 기본합의에 따른 KEDO로부터의 중유공급은 심각한 에너지를 해소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- KEDO는 6월말 현재 금년도 중유지원분 50만톤 중 21만톤 지원

○ 기간중 원유,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규모는 금액 면에서 전년동기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북한의 구조적인 에너지를 더욱 가중시켰음.

-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의 광물성 연료 수입규모가 전년동기 보다 33.2% 감소한 5,980만 달러 수준

○ 기계·금속·화학·건설 등 북한의 기간산업부문에서는

- 에너지 부족, 기초 및 중간원료의 공급부족, 기술낙후 등이 전년동기와 마찬가지로 극심한데다가
- 이상고온 및 가뭄현상, 해일피해 등이 겹침으로써 예년보다 공장가동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
- 따라서 동부문의 생산활동은 전년동기 보다 위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.

(2) 생산동향

○ 북한은 월말이 되면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일환으로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주요 공장·기업소들이 그 달의 월간계획을 초과 수행한 것처럼 선전해 오고 있음.

- 주로 연합기업소, 종합기업소 등 정무원 산하의 규모가 큰 공장, 기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쟁을 유도

○ '97년 상반기중 북한선전매체의 월중계획 완수보도 경향을 빈도면에서 보면

- 1/4분기까지는 달이 거듭될수록 계획완수대상 공장·기업소의 숫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총 67개단위가 1/4분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

- 2/4분기에 들어서면서 계획완수 공장·기업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1/4분기 이후 생산실적이 극히 저조한 부진상을 보였음.

< '97년도 월별 계획완수 공장·기업소 추이 >

1월	2월	1/4분기(3월)	4월	5월	상반기(6월)
25개 단위	32개 단위	67개 단위	19개 단위	25개 단위	11개 단위

- o 특히 6월 말에 즈음해서 북한은 주요 공장·기업소들이 「상반년계획」을 완수하였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성과가 있는 공장·기업소들을 선전하였음.

< '97년도 「상반년계획」 완수 공장·기업소 현황 >

분 야	공장·기업소
석탄공업	득장·개천·순천·북창·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
기계공업	자강도 주철광공장, 강계농기계공장
경공업(지방공업)	유원신발수출품공장, 자강도 우시군내 지방산업공장(화학공장·직물공장·식료공장·종이공장·일용품생산협동조합 등), 단천초물공장
기 타	해운연합총국



○ 이번 「상반년계획」 완수 동향에서 나타난 내용상의 특징은

- 각종 건설공사 및 영농준비와 관련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기, 농기계 등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
- 당면한 에너지난 해소의 일환으로 안주·개천·북창 등 평남지구 탄전들의 석탄증산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나
- 용성기계연합총국,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북한의 대형 공장·기업소들은 거의 상반년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으며
- 석탄공업부문도 일부 탄광들만이 주어진 석탄생산 목표량을 겨우 달성(수행률 100.1~100.3%)하는데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점임.

○ 다만 경공업부문은 위탁가공제품 생산에 힘입어 여타부문 보다는 생산이 활발하여 「상반년계획」수행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였음.

- 그러나 위탁가공 상품은 4월이후부터 「월중계획」에 미달하는 등 다소 위축되는 동향
- 지방공업부문에서 310여개의 공장·기업소가 「상반년 계획」을 완수(「중방」, 6.7)

< 부문별 「상반년계획」 완수 공장·기업소 비중 >

석탄공업	기계공업	경공업	기 타
45.5%	18.2%	27.3%	9.1%

○ 이로 볼 때 금년도 상반기간중 북한경제는

- 각종 건설사업 및 영농준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석탄공업 부문의 생산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
- 식량난에 기인한 근로의욕 감퇴 등 구조적 문제점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경제침체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.

○ 또한 북한선전매체들은 상반기 중에 상당수의 공장·기업소들이 「매일계획」을 120~150% 달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

- 「상반년계획」을 완수한 공장·기업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북한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음.

## 마. 수송·통신 및 과학기술 부문

### (1) 수송·통신

#### ○ '97년 상반기중 북한의 철도수송부문은

-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「철도운수의 보장」을 '97년도 경제 중점시책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「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」(2.3)을 개최하였으나
- 예년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철도운수부문의 노력경쟁운동인 「5.18 무사고 정시 견인초과 운동」에만 의존함으로써
- 수동통제방식의 재래적 철도운영체계, 화물차량 및 수송시설의 취약성 등이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수송실적 역시 전년동기 수준을 면치 못하였음.

#### ○ 도로 및 해상수송에 있어서도 유류의 절대부족으로 수송실적은 전년동기 수준에서 맴돌았음.

#### ○ 그러나 위탁가공상품의 수출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에 힘입어 일부 수송부문에서는 시기에 따라 다소 활기를 보이기도 하였음.

- 북한은 육운총국은 「1/4분기계획」을, 해운연합총국은 「상반기계획」을 계획기간내 완수하였다고 선전

○ 상반기중 수송부문의 건설실적을 보면

- 원산~금강산간의 전기철도인 금강산청년선(101.5km)이 개통(4.24)되었으며
- 나진·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항인 청진항에 3호 및 4호 부두 건설 1단계공사(총연장 480여m 구간의 내벽쌓기공사)를 완료(3.26)하고 2단계 공사에 들어갔음.

○ 대외적으로는

- 3.8~3.28 기간중 철도대표단(단장 : 철도부 부부장 서남신)이 북한·러시아 정부간 「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분과회의」에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하였고
- 5.17~6.20 기간중에는 철도대표단(단장 : 철도부 부부장 장덕룡)이 「철도협조기구」 제25차 상(각료)회의에 참석하는 등
-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철도화물의 연계수송협력 강화 및 낙후된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원조 획득에 총력을 기울였음.

○ 또한 북한-러시아간 「항공로에 관한 협정」을 체결(5.21)함으로써 '55.12.7 「항공운수협정」을 체결한 이래로 '8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갱신하였던 동 협정을 다시 갱신하였음.

○ 한편 통신부문에서는

- 체신질(4.8)에 즈음하여 체신부문의 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취약한 기업관리를 정규화·규범화하기 위해
- 전신통신, 우편통신, 방송시설 운영 등 체신사업 전반에 걸쳐 규제하는 「체신법」(6장 52조로 구성)을 채택하였음.

- 기간중 북한은 대내 선전선동과 관련 체신수단의 현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으며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음.

(2) 과학기술

-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례적 행사인 「전국(지방)과학기술축전」(제12차)을 개최하였음.
- 그러나 동 축전에서는 「2000년 과학기술 발전 전망목표」에 따라 취약부문인 전자·기계·열·생물·화학공학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촉구하는데 그쳤을 뿐 뚜렷한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음.

※ 「전국과학기술축전」 :

- '85.8월 김정일의 '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'라는 제하의 논문 발표가 계기가 되어

- '86.2월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마다 전년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결산하고 해당년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행사로서
  - 축전기간중에 북한은 △공장·기업소 단위 △시·군·구역 단위 △도·직할시 단위 △중앙단위 순으로 과학연구발표회, 신기술 도입성과 발표회, 기술혁신 현상모집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.
-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.11~20기간중 개최된 제25차 제네바 「국제발명,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」(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 New Techniques and Products)에 북한은 10점의 발명품들을 출품, 모두 메달을 획득하였음.
- 금메달 2개, 금은메달 2개, 은메달 5개, 동메달 1개 등
- ※ 남한은 28점의 발명품을 출품하여 모두 메달 획득 (금메달 9개)
- 한편,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김정일의 3대혁명전시관 현지지도 관철을 위한 종업원 쉼기모임을 개최(6.20)한데 이어 전국 과학자·기술자 돌격대원 쉼기모임을 개최(6.29), 과학기술분야의 「획기적」발전을 결의하였음.

○ 대외적으로는

- 과학기술대표단(단장 : 국가과학기술위 부위원장 한상표)이 러시아를 방문(3.29~4.19)한 것 외에
- 매년 3~4차례정도씩 있어 왔던 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
- 기간중 대외교류협력이 직면한 경제난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위축되었음을 보여 주었음.

### 3. 대외경제동향

#### 가. 대외무역

○ '97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국가별 무역동향을 살펴보면

- 대중국 무역규모는 중국으로부터 식량 등 원조성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으며
- 대일본 무역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총교역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「엔」화의 환율상승으로 미달러화 베이스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한편 기타국들과의 무역실적은 국가별로 증감이 교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음.

- 이에 따라 기간중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동기비 약 4.8% 증가한 8.7억달러인 것으로 잠정 평가되었음.

< '9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잠정평가 >

(단위 : 억달러)

구 분	총 액	수 출	수 입
중 국	2.9(2.5)	0.4(0.3)	2.5(2.2)
일 본	2.1(2.3)	1.3(1.2)	0.8(1.1)
러시아	0.3(0.2)	0.1(0.0)	0.2(0.2)
기 타	3.4(3.3)	1.2(1.1)	2.2(2.2)
총 계	8.7(8.3)	3.0(2.6)	5.7(5.7)

주: ( )내 수치는 전년동기 북한의 무역실적

[ 중 국 ]

- '97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억9,523만 달러로서 전년동기비 19.3%의 신장세를 보였음.
  -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58.4% 증가한 4,282만달러
  -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14.5% 증가한 2억5,241만달러
  -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동기 보다 확대된 2억960만달러



< '97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실적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7년 상반기	'96년 상반기	증 감 률
총 액	295,227	247,549	19.3
수 출	42,815	27,041	58.3
수 입	252,412	220,509	14.5
무역수지	△209,597	△193,468	-

○ '97년 상반기중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들을 살펴보면,

- 주요 수출품목은 나무·목제품, 철강, 광슬래그, 약용식물 등으로
- 그 중 나무·목제품의 수출규모는 1,620만달러로서 전년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
- 또한 철강(1,018만달러), 약용식물(196만달러) 등도 여전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목재를 포함한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전체의 67.7%를 차지하였으며
- 한편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이었던 생선 등 수산물 수출액은 236.5만달러로, 전년동기(345.5만달러)에 비해 큰 폭(△31.5%)으로 감소하였음.

-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상품은
  - 석유·코크스 등 광물성연료(5,523만달러), 밀가루·국수 등 제분공업품(4,409만달러), 곡물(5,603만달러)로서, 에너지·식량관련 품목의 수입이 전체의 61.5%를 차지하였음.
  
- 특히 식량난과 관련 쌀·옥수수 등 곡물 수입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액(3,003만달러)을 훨씬 초과하였는 바
  - 이는 쌍방간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중국 중앙정부의 원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성 거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.
  
- 그밖에 비료 수입규모(1,158만달러)도 지난해 1년동안의 수입액(388만달러)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.
  
-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 있어서 나타난 특징은
  - 식량 관련 품목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
  - 생산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임.

- 특히 식량·식료품 등 식량 증산을 위한 농사용 비료, 종자 등의 도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
  - 플라스틱, 고무, 면화, 화학섬유사 등 공업용 원료의 수입은 크게 위축되었음.
  
- 이와 같은 북한의 수입 증가는
  - 구조적인 생산침체를 벗어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
  - 다만 식량난 등 당면한 일부 경제현안문제에 다소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풀이할 수 있음.
  
- 한편, 대중국교역에서 목재, 철강, 약용식물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는 바,
  - 이러한 현상은 식량 및 에너지 상품과의 구상무역을 위해 북한이 가용자원의 동원에 노력을 집중한 결과로 보임.
  
- 따라서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
  - 당면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, 수출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곡물을 도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.

< '9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교역동향 >

(단위 : 천달러, %)

품 목	수 출	전년동기비 증감률(%)	수 입	전년동기비 증감률(%)
동물성생산품	2,419	△30.0	1,623	16.7
식물성생산품	2,644	213.6	113,029	134.2
동식물성 유지 등	-	-	5,282	394.1
조제식료품, 음료, 담배 등	11	8.3	7,477	△37.1
광물성생산품	5,186	24.6	59,795	△33.2
화학공업생산품	6	△99.6	21,788	57.0
플라스틱·고무제품	60	△96.9	8,108	△34.4
원피, 가죽, 모피제품	137	△69.5	529	241.3
목재·목제품	16,307	152.0	203	△66.0
펄프·종이제품	64	100.0	896	39.7
방직용 섬유제품	1,171	△23.9	11,600	25.1
신발류, 모자류 등	1	△93.8	298	△15.8
석재, 시멘트, 유리제품 등	4	△20.0	330	△47.4
귀석, 귀금속	-	100.0	-	100.0
철강 및 일반금속제품	11,555	109.7	3,464	55.0
기계·전기·전자제품	3,228	169.9	7,383	13.4
운송기기	4	△89.7	8,131	100.8
광학, 의료, 계측기기 등	14	1,300	679	43.5
무기, 탄약 등	-	-	957	△67.1
가구, 완구 등 잡제품		100.0	841	56.9
예술 및 골동품	4	300.0	-	-
합 계	42,815	58.3	252,412	14.5

[ 일 본 ]

○ '97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일본 무역은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수출이 늘어난 결과 무역실적은 전년동기 보다 약간 증가(0.8%)한 248.3억엔을 기록하였음.

- 대일 수출은 152.2억엔로 전년동기비 16.3% 증가
- 대일 수입은 96.2억엔으로 전년동기비 16.7% 감소
-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증가, 수입감소의 여파로 크게 확대된 56억엔을 기록

○ 그러나 미달러화 베이스로는 기간중 「엔」화의 환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보다 무역총액이 오히려 감소(-8.7%)하였음.

※ '97상반기 「엔」화 평균환율 : 1달러:120.39엔('96상반기 1달러:106.64엔)

< '97년 상반기 대일본 무역 실적(추정) >

(단위 : 백만엔, %)

구 분	'97년 상반기	'96년 상반기	증 감 률
총 액	24,833	24,625	0.8
수 출	15,218	13,088	16.3
수 입	9,615	11,537	△16.7
무역수지	5,603	1,551	-

- 기간중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은 위탁가공 섬유제품(남자 용코트, 양복, 바지 등), 식물성 산품(벼짚), 동물성산품(모시조개 등), 광물성 생산품(무연탄) 등으로 나타났으며
  - 그중 벼짚 등 식물성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(28.4억엔, 전년동기비 62.8% 증가)하였으며
  - 그밖에 뽕금속(19.1억엔, 64.4% 증가), 광물성생산품(17.7억엔, 18.0% 증가)도 수출이 증가하였음.
  - 한편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섬유제품(10.2% 감소), 깃지렁이 등 동물성산품(1.7% 감소) 등임.
  
- 기간중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은 석유, 수송기기, 전기기기 등으로서
  - 그중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위탁가공용 섬유 원·부자재(32.9억엔, 11.4% 증가), 승용차 등 수송기기(15.4억엔, 64.2% 증가), 전기기기(12.9억엔, 39.4% 증가) 등이며
  -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기계류(42.6% 감소), 화학공업 생산품(42.7% 감소) 등임.
  
- 따라서 기간중 북한의 대일본 무역은
  - 저부가가치의 1차 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고부가가치의 산품을 수입하는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무역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겠음.

< '97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교역 동향 >

(단위 : 백만엔)

품 목	수 출	전년동기비 증감률(%)
○ 동물성 생산품	2,388	△1.7
- 바다참게(산것, 신선, 냉장)	177	△40.3
- 갯지렁이(산것)	122	△54.3
- 대합(산것, 신선, 냉장)	393	73.4
- 모시조개(산것, 신선, 냉장)	1,244	11.6
○ 식물성 생산품	3,051	57.9
- 약품식물	88	21.1
- 곡물·짚	2,838	62.8
○ 조제식료품, 음료	130	16.4
- 대구알 조제품	58	
○ 광물성 생산품	1,770	18.0
- 천연모래	64	
- 마그네시아	225	△13.2
- 슬러그, 스케일 등	198	27.9
- 무연탄	1,175	44.8
○ 화학공업 생산품	130	6.6배
- 염화칼륨	116	
○ 목재 및 목제품	145	208.7
○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	4,673	△10.2
- 남성용코트, 아노락(Anorak)류	900	△21.7
- 남성정장, 바지류	2,633	△12.0
- 트랙슈츠, 스키복, 수용복	633	177.5
○ 비금속 및 동제품	1,909	64.4
- 선철	232	44.5
- 철스크랩	728	-
- 납괴	263	△34.9
- 아연괴	328	△31.1
○ 전기기기	835	71.9
- 부분품(트랜스, 컨버터류)	741	65.6
○ 기 타	188	
합 계	15,218	16.3

(단위 : 백만엔)

품 목	수 입	전년동기비 증감률(%)
○ 광물성 생산품	680	27.3
- 알미늄을 주성분으로한 회, 잔유물	59	
- 중유	604	25.6
○ 화학공업 생산품	197	△42.7
- 니스, 페인트	68	
○ 플라스틱, 고무제품	512	△6.3
- 플라스틱제 시트, 필름	132	
- 플라스틱제 뚜껑, 캡류	127	
○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	3,289	11.4
- 소모직물(양모제, 섬수모제)	1,120	19.3
- 인조섬유의 장·단섬유 동 직물	1,041	△17.5
- 메리야스 및 크로세 편물	238	△28.6
○ 비금속 및 그 제품	361	45.8
- 철, 비합금강제 플랫폼 제품	55	
- 스텐레스강제 플랫폼 제품	39	△80.5
○ 기계류	538	△42.6
- 내연기관	52	
- 액체펌프	74	△66.4
- 냉장차·냉동기기	38	
- 미싱	44	
○ 전기기기	1,293	39.4
- 발전기	78	
- 영구자석	559	116.5
- 전력·통신용 케이블	270	114.3
○ 수송기기	1,544	64.2
- 버스	114	△45.5
- 승용차	1,035	186.2
- 화물자동차	302	△4.1
○ 재수출	294	△84.2
○ 기 타	907	
합 계	9,615	△16.7

※ 자료원 : 일본 대장성 통관 통계



[ 러시아 ]

- '97년 상반기중 북·러 교역실적은 3,500만달러에 달하여 전년동기보다 큰 폭으로(59.1%) 증가하였음.
  - 대러 수출은 전년동기비 12배 증가한 1,2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
  - 대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9.5% 증가한 230만달러에 불과
  
- 대러 수출품목은 중계무역에 의한 제3국 상품(자동차, 의료기기, 곡물, 냉동어류, 주류 등)이 대부분이며,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였음.
  
- 북한의 대러 수입품목은 석유제품, 천연가스, 흑색금속, 목재 등 에너지·원자재관련 상품이 주종을 이루었음.

< '97년 상반기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실적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7년 상반기	'96년 상반기	증 감 률
총 액	35,000	22,000	59.1
수 출	12,000	1,000	12배
수 입	23,000	21,000	9.5

## [ 기타 국가 ]

○ 영국과의 교역은 상반기중 수출입이 모두 증가, 전년동기 보다 45.0% 증가한 1,395만파운드(약 2,285만달러)를 기록하였음.

- 대영국 수출 : 42.3만파운드(약 69만달러 : 91.4% 증가)

- 대영국 수입 : 1,352.3만파운드(약 2,215만달러 : 43.9% 증가)

○ 프랑스와의 상반기 교역도 수출입의 증가로 9,707만프랑(약 1,671만달러)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비 22.5% 증가하였음.

- 대프랑스 수출 : 7,620만프랑(1,311만달러 : 27.6% 증가)

- 대프랑스 수입 : 2,088만프랑(359만달러 : 21.2% 증가)

## 나. 남북교역

○ '97년도 상반기 남북한 교역실적(통관기준) 1,937건, 1억 4,544만달러로서 전년동기 1억1,634만달러에 비해 약 25.0% 증가하였음.

- 반입실적은 전년동기보다 18.0% 증가한 9,706만달러

- 반출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41.9% 증가한 4,839만달러

< '97년 상반기 남북교역실적(통관기준) >

(단위: 천달러, %)

구 분	'97.1~6월	'96.1~6월	증 감 륜
교역총액	145,443	116,337	25.0
반 입	97,058	82,229	18.0
반 출	48,385	34,108	41.9

- 남북교역 품목중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입에서는 16.8%(1,633만달러), 반출에서는 40.5%(1,958만달러), 전체 규모에서는 24.7%(3,591만달러)를 차지함으로써 남북한간 위탁가공 교역의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낮아졌음.

※ 전년동기의 위탁가공 교역비중 : 반입 17.2%, 반출 55.8%, 반·출입전체 28.7%

- 상반기중 남북교역의 반·출입 상품 구조를 보면

- 반입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철강금속 제품이 여전히 절대적 비중(61.6%)을 차지하고 있으며, 위탁가공품목인 섬유류의 점유율도 19.4%에 달하였으나, 섬유류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비 다소 감소(2.2%)하였음.
- 반출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섬유원재료, 화학제품의 비중이 각각 44.6%, 30.1%를 점유하고 있음.

< '97년 상반기 주요 반·출입 품목 구성 >

구 분	'97년 상반기	'96년 상반기
반 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강금속(61.6%) - 금괴, 아연괴, 빌레트, 은괴</li> <li>○ 섬유류(19.4%) - 셔츠류, 면타월, 바지류, 자켓류 등</li> <li>○ 농·림수산물(13.7%) - 냉동문어, 냉동복어, 생대합, 백출 등</li> <li>○ 기 타(5.3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강금속(61.5%) - 금괴, 아연괴, 은괴, 빌레트, 열연</li> <li>○ 섬유류(21.6%) - 남자셔츠, 바지, 면타월, 아크릴사</li> <li>○ 농·림수산물(12.1%) - 한액재, 로얄제리, 호두, 복어, 냉동문어</li> <li>○ 기 타(4.8%)</li> </ul>
반 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섬유류(44.6%) - 직물류, 의류부속품, 소가죽, 오리털 등</li> <li>○ 화학제품(30.1%) - 중유, LDPE</li> <li>○ 기계전자(6.2%) - 칼라TV 부품 등</li> <li>○ 농림수산물(5.6%) - 밀가루, 감자, 채소종자</li> <li>○ 기타(13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섬유류(62.3%) - 방직섬유, 의류부속품, 직물, 레이블</li> <li>○ 화학제품(21.5%) - 중유, LDPE</li> <li>○ 기계전자(4.7%) - 칼라 TV부품, 신호 발생기, 각종 부속품, 지질조사장비</li> <li>○ 기타(11.5%)</li> </ul>

## 다. 나진·선봉지대 개발

- 기간중 북한이 추진한 나진·선봉지대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
  - 원정리-나진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(홍콩 타이슨사)를 계속 추진하였으며
  - 나진항 크레인설비 개체작업(연변항운공사)을 진행하였음.
  - ‘엠펜로호텔’ 기공식(2.1) 및 건물기반 공사도 착수하였으며
    - ※ 홍콩 엠펜로그룹은 ‘96. 9 호텔건설에 총1억8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한 바 있음. 동 그룹은 1단계로 5,400만불을 투자, 나진-선봉시 관곡동 12만m<sup>2</sup> 부지에 100실의 규모 호텔 및 카지노 공사를 시행
    - 현재 엠펜로그룹은 호텔을 관리하기 위해 「Big Star Profit Ltd.」를 설립해 놓은 상태임.
  - 나진·선봉지대내 휴대폰 개통(‘97 하반기 예정)을 위한 준비(록슬리그룹)를 진행중에 있음.
- 한편 나진·선봉지대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 지역내 경제개혁·개방조치를 시행(‘97.6.1)하였음.
  - 화폐개혁 : ‘외화와 바꾼돈표’ 폐지, 환율 조정(US 1\$=200원)

- 주민의 자유영업 허용 : 일반주민도 북한 중앙당국에 일정률의 납부금을 내고 자유영업이 가능
  - 국경 자유무역시장 개설 : 북-중 국경지역인 원정-권하다리 북측세관앞 부지에 변경 자유무역시장 개설(6.17)
  -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: 지대내 공장과 기업소는 국가 계획관리체제로부터 독립, 자기 책임하에 독립 운영
  -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, 함경북도 철도체계 재조정, 상업교육기관 설립 등
- 그러나 경제개혁 조치 등 북한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지대 개발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임.
-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동지대를 개발할 방침이나, 투자여건 미비 등으로 외국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
  - 이미 투자계약이 체결된 엠페로그룹 호텔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북 투자활동을 찾아볼 수 없음.
- 북한은 외국자본의 적극 유치를 위해 나진 선봉 이외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,
- 이는 나진 선봉지대 개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.

## 라. 대외경제협력

-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, 의약품, 생필품 등의 지원을 획득하는데 역점을 두었음.
  - 미국, 중국 등의 국가에 대한 식량 등 지원요청과 함께
  - WFP, IFRC, NGO 등을 통한 지원 확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.
  
- 미국과의 관계에서
  - 미-북 준고위급회담 등의 접촉 기회를 통해, 기회 있을 때 마다 식량지원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하였음.
  - '96년말 미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 추진하던 카길사의 곡물 수출(최대 50만톤)은 북한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.
  
- 일본에 대해서는
  -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접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, 일본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.
  -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「조총련」 교육원 조비 및 장학금 명목으로 2차례(2.16, 4.15)에 걸쳐 2억 4,400만엔을 전달한 바 있음.

○ 중국과는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, 부족한 식량원조 획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.

- 중국 정부는 상반기중 약 7만톤의 무상식량을 북한에 제공

○ 러시아와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고위 경제대표단간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

- 북·러간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(1.24),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(5.21) 등 체결

○ 이밖에도 북한은

- 베트남, 라오스,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

- 쿠바, 이집트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들과의 유대 지속에도 노력을 기울였음.

○ 한편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와의 협상 결과,

- 「서비스의정서」·「부지의정서」(1.8), 「미지급시 조치의정서」(6.24) 등이 발효되었음.

※ 「서비스의정서」와 「부지의정서」는 96. 9 이미 문안 합의가 되었으나, 잠수함사건으로 발효가 지연되었음.



- 또한 부지조사 및 인수, 97. 7월로 예정된 KEDO 금호사 무소 개선 준비도 진행되었음.

○ 전반적으로 볼 때 '97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활동은

- 극심한 식량난 극복 등을 위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획득에 역점을 두었으며,
-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 성과는 극히 부진하였음.

< 상반기 북한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현황 >

시 기	대상국	내 용
1. 8	KEDO	○ 경수로 제공협정에 따른 부지의정서·봉사의정서
1.24	러시아	○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
2. 3	UNDP	○ 공업환경부문 협정
3.17	WFP	○ 큰물피해 긴급식량협조 양해각서
4. 1	FAO	○ 농업부문 큰물피해 협조대상 문건
5.21	러시아	○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

< 상반기중 주요 경제협력 활동 >

시 기	내 용
1.18	○ 미·북 기본합의문 이행 관련 제7차 기술협상회의 참석 IAEA대표단, 평양 도착
1.21	○ 미 카길사 대표단, 평양 도착
2.10	○ 「직총」대표단(단장 : 부위원장 이진수), 일본 방문
2.16	○ 김정일, 「조총련」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1억2,400만엔 전달
2.21	○ 「직총」대표단 귀국
3. 1	○ KEDO 대표단, 평양 도착
3.28	○ 철도부 대표단(단장: 부부장 서남신), 러시아 무역·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운수분과회의 참석후 귀국
3.29	○ 과학기술대표단(단장 : 과학기술위 부위원장 한상표), 러시아 방문
4. 5	○ 일본 농업기술자대표단, 평양 도착
4. 7	○ 공진태 부총리, 베트남 도착
4. 8	○ 일본 농업기술자대표단, 평양 출발
4. 9	○ KEDO 고위전문가 협상대표단, 신포시 양화항 도착
4.12	○ 국제관광총국 대표단(단장 : 김도준 총국장), 아태 여행 협회 제46차 총회참석차 평양 출발 ○ 공진태 부총리, 귀국

시 기	내 용
4.12	○ 중국정부, 북한에 7만톤의 무상식량 제공 결정 통보 (만영상 → 김영남) ○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부회장 박희덕, 평양 도착
4.13	○ KEDO 고위전문가 협상대표단, 신포 출발
4.15	○ 김정일, 「조청련」 교육원조비·장학금 1억2천만엔 전달
4.18	○ 스웨덴, WFP 통해 1,200만달러 대북지원 결정 통보
4.19	○ 과학기술대표단 귀국
4.28	○ 라오스 정부 무역대표단, 평양 도착
4.30	○ 덴마크·영국·대만 및 각국 NGO제공 식량·영농물자, 남포항 도착
5. 3	○ 라오스 정부 무역대표단, 평양출발
5.11	○ 쿠바, 사탕가루 1만톤 기증 결정 (주쿠바 북한대사 김승용에 전달)
5.17	○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출발 ○ 철도대표단(단장 : 철도부 부부장 장덕룡), 철도협조기구 25차 장관회의 참석차 평양출발
5.20	○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출발
5.22	○ 러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출발 ○ 외교부 대변인, 식량난 관련 담화 발표

시 기	내 용
5.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EDO 고위전문가 협상대표단, 평양 도착</li> <li>○ 러시아 모스크바시위원회 대표단, 평양 도착</li> <li>○ 전력공업부 대표단(단장 : 부부장 박을영), 조·중 수력발전회사 제50차 이사회 참석차 평양 출발</li> </ul>
6. 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EDO 고위전문가 협상대표단, 평양 출발</li> </ul>
6.1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력공업부 대표단 귀국</li> </ul>
6.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부 대표단(단장 : 부부장 장덕룡), 우즈베키스탄 방문 마치고 귀국</li> </ul>
6.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국 정부 무상제공 식량(7만톤) 북한 도착</li> </ul>
6.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UN 인도구호국 사무차장(아카시 야스시), 평양 도착</li> </ul>
6.2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집트 철도근로자총동맹 대표단, 평양 도착</li> <li>○ UN 인도구호국 사무차장, 평양 출발</li> <li>○ 중국 정부 경제무역대표단, 평양 도착</li> </ul>
6.2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 경제대표단, 평양 도착</li> </ul>

#### 4. 종합평가

##### ○ 북한은 '97년도 경제시책으로

- ①「먹는문제」의 결정적 해결 ②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③국토건설사업의 추진 등 당면한 문제들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하는 한편
- 당초 완충기('94~'96년)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는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
- 예년과 마찬가지로 석탄·전력·금속 등 선행부문의 생산혁신과 철도수송의 보장을 통해 경제난 및 수송애로를 극복한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견지하였음.

##### ○ '97년도 상반기 부문별 대내동향을 보면

- 재정부문은 예산을 최고인민회의의 공식적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파행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의 낭비·누수현상이 심화되었고
- 농업부문은 이상고온현상 및 가뭄피해, 해일피해 등과 함께 전력난, 농업근로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정상적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었으며
- 건설부문은 재정사정 악화 및 건설자재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제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사적비 등 소규모의 정치 선전적 상징물 건설에 주력하였고

- 광공업부문 역시 위탁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경공업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으로 각 공장·기업소의 가동률이 전년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됨.

○ '97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동향은

- 국가별 무역에 있어서 아직도 중국, 일본 등 주요 4개국에 편중(60%이상)되어 무역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
- 수출입상품 구조면에서도 국제 경쟁력 약화로 곡물, 섬유류, 철강제품 등 원조성 또는 위탁 가공 품목에 65~80% 이상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
- 기간중 무역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무역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였음.
- 한편, 나진·선봉지대 개발에 있어서는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서방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.

○ 이를 종합해 볼 때 '97 상반기중의 북한경제는

- 북한당국이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합리적 증산책 보다는 절약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시책으로 일관함에 따라

- 극심한 식량난, 가뭄피해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및 당국의 경제통제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
- 만성적인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구조적 어려움만 가중된 것으로 평가됨

○ 따라서 금년도 북한경제는

- 금년도가 사실상 완충기('94~'96년) 연장년도임에도 불구하고, 하반기에도 경제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



< 부 록 >

## ‘97년 상반기 북한경제 일지



- 1. 1 • '97년 당보·군보·청년보, 「공동사설」 발표
- 1. 5 • 공동사설 관철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(평양체육관)
- 1. 6 • 평양시 청년전위들, 충성의 궤기모임 개최(김일성광장)
  - 사회안전부 책임일군·군무자들, 공동사설 관철 위한 궤기모임개최(봉화예술극장)
  - 황북 은파군 양동협동농장, 공동사설 관철 위한 궤기모임 개최
  -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2.8직동청년탄광, 공동사설 관철 위한 궤기모임 개최
  - 인민문화궁전에 「계급교양관」 신설 개관식 개최
- 1. 8 •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청년전위들, 충성의 궤기모임 개최 (보고 : 최용해)
  - 인민군 육해공군부대·구분대, 공동사설 관철 위한 궤기모임 개최
  - KEDO대표단과의 뉴욕협상을 통해 경수로 제공협정에 따른 부지의정서·봉사의정서 조인(※ 1.11, 「중방」 보도)
- 1. 18 • LAEA대표단, 미·북 기본합의문 이행문제 관련 제7차 기술협상회의 참석차 평양 도착
- 1. 20 ~21 • 「청년동맹」 중앙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(평양)

1. 21 • 미국 카길회사 대표단(단장 : 노이엘 코길라드 북아시아 담당 단장) 평양 도착
1. 22 • 황해남도 연안·신천군 등에 20개의 복합미생물비료공장 건설(1.23, 중방 보도)
1. 23 • 중앙인민위 정령, 매년 1월 28일을 「무역절」로 제정
1. 24 • 북·러, 「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」 조인
1. 24 ~ 27 • 전당 당일군회의 개최(4.25 문화회관)  
- 개회사 : 계응태, 김정일 편지전달 : 최태복
1. 25 • 김정일, 애국모란피복공장·모란봉합영회사·안주수출피복공장 등에 감사 전달  
•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, 제2차 총회 개최(조선출판회관)  
- 연설 : 책임부의장 허종만, 보고 : 학장 송원진
1. 29 • 「직총」 중앙위 제33차 전원회의 개최(평양) ※보고 : 주성일
1. 30 • 정당·단체연합회의 개최(인민문화궁전)
2. 1 • 김정일,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중 계획과제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신천군 등 50개 시·군에 감사 전달  
•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일군회의 참가자들, 김일성동상 참배

- 2. 1 • 나진·선봉지구에서 앰퍼러호텔(홍콩자본 1억8천만달러 투자)기공식 진행
- 2. 1 ~2 • 국토환경보호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 개최(인민문화궁전)  
- 보고 : 홍성남
- 2. 3 • 북한 큰물피해대책위, 수재로 인한 식량문제관련 담화 발표  
• 김정일 55회 생일 기념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 개최(철도부회관)  
• 북한·유엔개발계획 「공업환경부문 협정」 체결(평양)  
• 「농근맹」 중앙위 제29차 전원회의 개최(보고 : 최성숙)  
• 김정일 55회 생일기념 직맹일군 연구토론회 개최(중앙로 동자회관)
- 2. 5 • 「여맹」 중앙위 제25차 전원회의 개최(평양)  
- 보고 : 부위원장 한개옥  
• 북한주재 베트남·인도·파키스탄 외교대표들·유엔개발계획 대표·세계식량기구대표·유엔아동기금대리대표 등,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참관
- 2. 10 • 「직총」 대표단(단장: 부위원장 이진수), 일본방문차 일차로 평양 출발  
• 청년사업부문 일군들, 김정일의 청년운동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 개최(청년중앙회관)  
• 평양시 청년학생들, 충성의 결의모임 진행(김일성동상 앞)  
• 「김일성·김정일 노작관」 개관식 개최(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 청사)

- 2. 13 • 김일성 노작 「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」 발표  
 25돌 기념보고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  
 - 보고 : 위원장 최성숙
- 2. 14 • 북한주재 경제·무역참사단(대표 : 러 무역대표 예브게니 빌림), 김정일 생일즈음 꽃바구니 및 축하편지 전달  
 • 김영용소속 부대, 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식 진행  
 • 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식 개최(맹산군)
- 2. 15 • 이용환 소속부대, 김일성·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식 개최
- 2. 16 • 김정일,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1억2,400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  
 ※ 136차에 걸쳐 총 430억 4,953만 2,433엔 전달  
 • 당 중앙위, 만경대의 천석식당·증산광산 봉사관리소 등 12개 단위에 「정춘실운동 모범단위」 칭호 수여  
 • 당 중앙위·중앙인민위·정무원 공동명의로 강서지구탄광기업소·7월31일탄광 등 57개 단위에 순회우승기 및 표창장 수여
- 2. 21 • 「직총」 대표단(단장: 부위원장 이진수), 일본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  
 • 인민무력부장 최 광, 심장마비로 사망  
 • 최 광 사망관련 국가장의위(85명) 구성  
 • 김정일, 석탄생산모범단위 및 원산-금강산 철길공사 지원 일군들에게 감사 전달(※ 2.22, 중방보도)

- 2. 23 • 『직총』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 개최(※2.24, 중방보도)
- 『청년동맹』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 개최(※2.24, 중방보도)
- 2. 24 • 『농근맹』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 개최
- 『여맹』 중앙위 집행위 확대회의 개최
- 2. 24 • 전국공산주의 미풍 청년선구자대회 개막
- ~25 - 축하문 : 김중린, 보고 : 최용해
- ※ 김정일애의 충성의 편지 채택
- 2. 26 • 평양도시설계사업소·도시계획설계사업소·측량 및 지질 조사대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개최(중앙로동자회관)
- 2. 27 •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, 불치의 병으로 사망(69세)
- 김광진 사망관련 국가장의원(24명) 구성
- 2. 28 • 김일성의 “국가 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하여” 발표 50주년 기념일
- 3. 1 • 김광진 장의식 진행(애도사 : 총정치국장·차수 조명록)
- KEDO대표단, 평양 도착
- 아·아프리카 러시아협회 대표단, 평양 출발
- 3. 5 • 토지개혁법령 발표 51주년 기념일
- 3. 6 • 농업근로자절
- 봄철 나무심기 근로단체 연합궐기모임 개최(5월1일 경기장)
- 3. 8 • 철도부 대표단(단장 서남신 부부장), 러시아 방문
- 북·러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운수분과 회의 참석차

3. 8 •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봄철 나무심기 궤기모임(3.7, 금수산 기념궁전 앞)  
- 당비서 김종린, 부총리 장철, 교육위원장 최기룡,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비서 이영덕 등 참석
3. 10 • 김일성의 “국가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하여” 발표 5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  
• 함북 화대군에 군민일치 모범군 칭호 수여
3. 15 • 부총리 공진태, 「세계식량계획」 집행국장과 담화(만수대의사당)
3. 16 • 「직총」 위원장 주성일, 「민주노총」·「한국노총」위원장들에게 상호집축제의 편지 발송  
• 「청년동맹」 1비서 최용해,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장에게 상호집축제의 편지 발송  
• 「농근맹」위원장 최성숙,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·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·범국민운동본부·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상호집축제의 편지 발송  
• 「여맹」 위원장 강관선,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·한국부인회 회장에게 상호집축제의 편지 발송
3. 17 • 부주석 이종옥, 「세계식량계획」 집행국장과 담화(만수대의사당)  
• 북-WFP간 “큰물피해 긴급식량협조 양해각서” 채택(평양)  
• 주북 유엔상주 조정자, WFP 집행국장 일행에 연회 배설



- 3. 19 • 김일성의 함남 현지도 40주년 기념보고회(함흥대극장)
  - 보고 : 함남 행정경제위 위원장 김풍기
- 3. 25 • 승리자동차종합공장, 김일성 현지도 2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- 3. 26 • 전국축산일꾼 열성자회의 참가자들, 금수산기념궁전 참배
- 3. 28 • 전국 축산일꾼열성자회의 개최(3.27~28, 인민문화궁전)
  - 부주석 박성철, 부총리 홍성남, 농업위원장 한익현, 농근맹 위원장 최성숙 등 참석
  - 참가자들에게 노력영웅훈장, 국기훈장 1급, 노력훈장 등 국가표창과 선물 수여
    - ※ 공화국 노력영웅칭호·금메달 마치고와 낮 및 국기훈장, 제1급(2명), 김정일 시계표창(1명), 국기훈장 제1급(10명), 노력훈장(75명)
  - 철도부대표단(단장 : 부부장 서남신), 러시아 무역·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운수분과회의 참석후 평양 도착
- 3. 29 • 정부 과학기술대표단(단장 : 부위원장 한상표), 러시아방문차 평양 출발
- 3. 31 • 김정일의 장산 식수 4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
  - 보고 :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강현수
- 4. 1 • 북한·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민족위, 「농업부문 큰물피해 협조대상 문건」 합의(평양)

- 4. 5 • 일본 농업기술자대표단, 평양 도착
- 4. 6 • 김일성의 국토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 준 5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(문수봉 혁명사적비)
  - 강현수, 양만길 등 참가(보고 : 양만길)
- 이종옥, 박성철, 김병식 등 당·정간부들, 식수질 즈음 문수봉 혁명사적지 등에서 기념식수
- 「농근맹」일꾼·농업근로자들, 청산리에서 식수
- 군장령·인민군 장병들, 장산혁명사적지에서 식수
- 4. 7 • 정부대표단(단장 : 공진태), 베트남 도착
- 4. 8 • 일본 농업기술자대표단, 평양 출발
- 체신절 (\*1946년 제정)
- 4. 9 • 사회안전원·인민경비대군인들,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맹세모임 및 경축야회 진행(김일성동상 앞)
  - 결의문 낭독 : 사회안전부장 백학립
- 김일성의 평양기관차대 현지도도 표식비 제막식 개최
- 전국청소년학생들의 「청년전위호 포」 증정식 개최(사리원)
  - 김중란·최문선(황북 인민위원장), 최용해·김정각(상장) 등 참가
- 「직총」 혁명사적교양실 개관식 개최
- 북한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(단장 : 러시아 무역대표 예브게니 빌립), 만경대 방문
- KEDO고위급 전문가 협상대표단, 신포시 양화항 도착

4. 11
- 「직맹」일꾼 및 직맹원들, 김정일에 대한 맹세모임 개최 (당창건기념탑 교양마당)
  - 「농근맹」일꾼 및 농맹원들, 김정일에 대한 맹세모임 개최 (만경대구역)
  - 혁명사적비 「군항이여 천만년 길이 전하라」 제막식 진행 (김동길 소속부대)
  - 중앙인민위, 해주기관차대 운전2중대에 「3대혁명붉은기」 수여
4. 12
- 국제관광총국 대표단(단장 : 김도준 총국장), 아·태 여행 협회 제46차 총회 참가차 열차편으로 평양 출발
  - 정부대표단(단장 : 공진태), 베트남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
  - 북한대표, 유엔인권예 관한 위원회 제53차 회의(안건 #9)에서 연설
  - 중국 당·정부, 북한에 7만톤의 식량 무상제공 결정 통보 (만영상 → 김영남)
  - 「천만년 빛나라, 대동땅의 영광이여」 제막식 진행(평양 대동군)
  -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부회장 박희덕 일행, 평양 도착
4. 13
-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8호 「군 지휘성원들에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」 발표(차수, 대장, 상장 등 장령급 123명)
  - 중앙인민위, 이을설·백학림에게 「노력영웅」 칭호와 금메달, 마치고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수여
  - 평산군에 김일성 현지도 사적집 건립
  - 함경북도 새별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

- 4. 13 • 김일성의 남포제련종합기업소 현지지도 50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
  - 만수대창작사, 김정숙의 「말씀판」 제막식 개최
  - KEDO고위급 전문가 협상 대표단, 신포 출발
- 4. 14 • 당 중앙위, 덕천시 사회급양관리소 등 12개 단위에 「정춘실운동 모범단위」 칭호 수여
  - 각 도, 직할시, 시, 군구역 연합기업소들, 4.15 즈음 기념보고 대회 개최
- 4. 15 • 김정일, 「조총련」에 교육원조비·장학금 1억 2천만엔 전달
  - 총 137차례 431억 6,953만 2,433엔 전달
  - 원산-금강산청년선 철길 개통식 진행(원산역)
    -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 : 한성룡, 보고 : 최용해
- 4. 18 • 김정일, 숙천군·대동군내 노동자들에 감사 전달
  - 강원도 원산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쉼기모임 개최(원산시)
    - 강원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임형구, 행정경제위원장 한영남, 농촌경리위원장 김홍수 등 참가
  - 스웨덴, WFP 통해 1,200만달러 대북지원 결정 통보
- 4. 19 • 정부 과학기술대표단(단장 : 국가과학기술위 부위원장 한상표), 러시아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
- 4. 20 • 김정일 현지지도 표식비 제막식 진행(초도 방어대)
- 4. 22 • 김정일의 현지교시판·김정일의 현지말씀판·김정숙의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(김일성고급당학교)

- 4. 23 • 김정일, 용양광산 금산갱 7호 굴착기 소대원들에 감사  
전단
- 이종근동무소속부대, 김일성·김정일 현지도 표식비 건  
립
- 탄부절 (※'94.4.24, 김일성 석탄공업부 방문)
- 4. 24 • 금강산청년선 전기철도 개통식 개최(안변역)
- 4. 25 • 국가계획위원장 한성룡·동 부위원장 홍석형, 인민군 각  
소속부대 방문
- 4. 28 • 남포시 룡강군, 김일성의 현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  
진행
- 라오스 정부 무역대표단, 평양 도착
- 4. 29 • 조선노동당, 강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감사문 전달모임  
개최
- 『토지법에 대하여』 발표 20주년 기념일
- 4. 30 • 덴마크·영국·대만 및 각국 NGO 등 제공 식량 및 영농물  
자, 남포항에 도착
- 제12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개최(청년중앙회관)
- 5. 1 • 만수대예술단·국립민족예술단·평양교예단 등, 「5.1절」 경축  
공연 진행
- 박성철, 「5.1절」 즈음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축하  
방문
-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·선교편직공장 등 「5.1절」 기념  
행사 진행

- 5. 1 • 김정일, 정방산·구월산 등 현지도
  - 조명록, 김영춘, 현철해, 김하규, 박재경, 이명수, 계응태, 최태복, 김국태, 김기남, 김용순 등 참가
  - 홍성남, 박성철, 김영남, 김복신 등 당·정간부,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등 축하 방문
  
- 5. 3 • 라오스 정부무역대표단, 평양 출발
  - 제12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식 개최(청년중앙회관)
  - 김정일, 원산-금강산 철길건설 완공에 기여한 「청년동맹」 일꾼들에게 감사전단(청년동맹회관)
  
- 5. 4 • 사리원시 근로자들, 김정일의 정방산 현지도 관철 쉼기모임 개최
  - 황북도당위 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 최문선, 사리원시 당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백운학 등 참가
  - 김일성의 개성시 현지도 5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  
- 5. 5 • 인민군 신대군소속부대, 김정일의 구월산 현지도('97.5.1) 과업관철 쉼기모임 개최
  
- 5. 6 • 전국 임업부문 열성자회의 개최(평양)
  - 한성룡, 홍성남, 홍석형, 김윤혁 등 참가
  - 묘향산역사박물관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    - 최태복, 장철 등 참가
  - 전국임업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및 선물 수여식 진행(인민문화궁전)
    - 한성룡, 김윤혁, 김제율(임업부 부장) 등 참가
  - 김정일, 대안담공장 일꾼과 종업원들에 감사 전달

- 5. 7 • 제25차 「제네바 국제발명 새기술 및 새제품전람회」에서 북한 출품작 전부 입상사실 보도
  - 금메달 2개, 금은메달 2개, 은메달 5개, 동메달 1개
- 5. 9 • 김정일, 상업부 자재상사 분초급당비서 김동렬 등에 감사 전달
- 5. 10 • 김정일, 김종태전기기관차 종합기업소 등에 감사 전달
  - 해주시, 「군·민다리」 준공식 진행
- 5. 11 • 쿠바, 북한에 사탕가루 1만톤 기증 결정(주쿠바 북한대사 김송용에 전달)
- 5. 13 • 김일성의 평양제사공장 현지도 50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
- 5. 15 • 지질탐사절('61.5.15 제정)
- 5. 16 • 김정일, 낙랑구역 남사협동농장 선동원 등에 감사 전달
  - 청진수산사업소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  - 김정일, 낙랑구역 남사협동농장 선동원·강서초물공장 등에 감사 전달
  - 김정일, 순천시 이수북청년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에 선물 전달
  - 제2금속공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- 5. 17 •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 도착
  - 라오스 친선대표단, 평양 출발

- 5. 17 • 철도대표단(단장 : 철도부 부부장 장덕룡), 철도협조기구 제25차 철도장관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
  - 김정일,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·창광원 등에 감사 전달
- 5. 19 • 김정일, 남포제련종합기업소 30일정양소 이경희 등에 감사 전달
  -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, 김정일에 선물 전달
  - 정부대표단,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과 회담(만수대의사당)
  - 부주석 이종옥,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과 담화(만수대의사당)
  - 중앙위 정령,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 성원들에게 「친선훈장 제1급」 및 「친선훈장 제2급」 수여 (만수대의사당)
  - 부총리 공진태,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과 담화(만수대의사당)
- 5. 20 • 말레이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 출발
- 5. 21 • 건설자절(※'71.4.30 제정)
  - 북한-러시아,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(평양)
  - 당 중앙군사위,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노동자·기술자·사무원들에 감사 전달
- 5. 22 • 러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 출발
  - 외교부 대변인, 식량난관련 담화 발표
  - 김정일, 국가과학원 의학과학연구원 합성제약연구소 등에 감사 전달
- 5. 28 • 평방, WFP 통해 여러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식량 5만9천톤 북한 도착 보도
  - 미국·스위스·영국·호주·EU·카리타스·아그라 등



- 5. 30 • 유색금속 및 인비료 공업연합총국, 인비료 생산성과 선전
- 5. 31 • KEDO 고위급 전문가협상대표단, 평양 도착
  - 러시아 모스크바시위원회 대표단, 평양 도착
  - 주북 베트남대사관 성원들, 조선·베트남 친선 잠진협농 모내기 지원
  - 7월1일청년별동대원·청년지원자·검덕청년광부들, 충성의 맹세모임 진행(검덕공업연합기업소)
    - 보고 : 최용해 • 러시아 정부대표단, 평양 출발
  - 김정일의 「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」 발표 7주년 기념일
  - 전력공업부 대표단(단장 : 부부장 박을영), 조·중수력발전회사 제50차 이사회 참석차 평양 출발
- 6. 3 • 애국복합미생물센터 완공·조업식 개최
  - 홍성남, 최희정(국가과학기술위원장), 한익헌(농업위원장), 김수익(해외동포영집총국장) 등 참가
  - 주북 인도대사관 성원들, 갈천협농 모내기 지원
  - 주북 중국유학생·실습생들, 조중친선 백압협농 모내기 지원
  - 「6.3 인민봉기」 기념일(※'64.6.3 발생)
  - 김정일, 김책공업대학 반도체집적회로연구소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
  - 중앙인민위 정령, 전조선인민경비대 군인·종업원들에 국가 표창 수여

- 6. 4 • 김정일, 함북도당 교육사업부 일꾼·희천여관 등에 감사 전달
  - 주북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성원들, 새날협농 농사일 지원
  - 주북 몽골대사관 성원들, 정방협농 농사일 지원
- 6. 6 • 군최고사령관 김정일 명의 전신명령 제003호 발표
  - 국가과학원,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장 이재업 사망(79세) 부고 발표
- 6. 7 • 지방공업절(※'70.4.6 제정)
  - 김정일, 임업부와 모란봉합영회사 일꾼 등에 감사 전달
  - KEDO 고위급 전문가협상대표단, 평양 출발
  - 김일성이 미림벌에서 칫 모 이식 5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    - 최태복·강현수·최성숙 등 참가
- 6. 8 • 중앙방송, KEDO·북한간 제2차 고위급전문가협상(6.1~6) 개최사실 보도
- 6. 10 • 북주재 폴란드대사관 성원들, 조선-폴란드 친선 장수원 협농 농사지원
- 6. 11 • 남포수산사업소, 김일성 현지도 40주년 및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- 6. 13 • 이종옥 부주석, 라오스 대외관계위원회 대표단과 친선담화(만수대의사당)
  - 김정일 현지도 표식비 건립(맹산군 평지리) 제막식 진행

- 6. 13 • 전력공업부대표단(단장 : 부부장 박을영), 조·중 수력발전이 사회 제50차회의 참석후 평양 도착
- 6. 15 • 김일성의 금성트랙터종합공장 현지지도 4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
  - 김정일, 천리마구역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일꾼·종업원들에 감사 전달
- 6. 16 • 김정일 청진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들에 감사 전달
- 6. 17 • 김정일, 고려봉사지도국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
- 6. 18 • 김정일의 당 중앙위 사업개시 33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(4.25문화회관)
  - 이종옥·박성철·김영남·전병호·한성룡·양형섭·최태복 등 참가
- 6. 20 • 국가과학기술위 종업원들, 김정일의 3대혁명전시관 현지지도 관철 위한 필기모임 개최
  - 철도부 대표단(단장 : 부부장 장덕룡), 우즈베키스탄 방문마치고 평양 도착
- 6. 21 • 중국 당·정부의 대북무상제공식량 7만톤 북한 도착
  - 김일성의 낙랑구역 두루섬 협동농장 현지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
- 6. 22 • 부총리 홍성남, 중국정부 경제무역대표단과 담화(만수대의사당)
- 6. 24 • 노동법령 발표 51주년 기념일

- 6. 24 • 유엔 인도주의문제담당 부사무총장 이행, 평양 도착  
• 부총리 겸 외교부장 김영남, 유엔 인도주의문제담당 부  
삼총장 이행과 담화(만수대의사당)
- 6. 27 • 공화국 정부, 주북 유엔개발계획대표·유엔 부사무총장 일  
행을 위한 연회 개최(평양고려호텔)  
• 김정일, 창광산여관 초급직맹위 일꾼 등에 감사 전달  
• 북주재 UNDP대표, 유엔 사무차장 환영집회 개최
- 6. 28 • 이집트 철도근로자 총동맹대표단(파르크 나싸르) 평양  
도착  
• UN 인도 구호국 사무차장(아카시 야스시) 평양 출발  
• 중국 정부 경제무역 대표단(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부부장  
유산재) 귀국
- 6. 29 • 전국 과학자·기술자 돌격대원 궤기모임(3대혁명전시관))  
•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경제대표단(국가지하자원개발 및  
이용위원장 뽀뜨르 쉬시긴) 평양 도착  
• 체신부, 김일성 도안 새우표 6종 발행
- 6. 30 • 김영웅 소속 부대 지휘관, 군인, 종업원들에게 김정일 감  
사 전달  
• 주북 외국인 경제·무역 관계자들을 위한 사진·영화 감상회  
개최(대동강외교회관)